



독서지도안

초등

지구촌 사회 학교

※ 여기 실린 독서 지도안은 10차시를 기준으로, 한 차시에 두세 가지 활동을 넣어 구성했습니다. 각 독서 지도안은 해당 도서의 성격에 맞게 조금씩 다른 구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급 구성과 교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골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든 독서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http://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 (초등)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마웅저 아저씨의 편지

진형민 글 | 김태은 그림



주제: 다문화, 인권, 민주 시민
관련 학년: 3~6학년 다문화 교육



어린이책이 없던 미얀마에 도서관을 열었어요!

마웅저 아저씨는 미얀마 사람이예요. 미얀마는 오랫동안 군인들이 통치하는 국가였어요. 마웅저 아저씨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갈 위험에 빠지자 한국으로 떠나왔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노동자로 살던 아저씨는 어느 날 미얀마의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미얀마 아이들에게는 책이 필요했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책 말이에요! 아저씨는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미얀마의 작은 마을에 “따비에 어린이 도서관”을 열었어요. 마웅저 아저씨는 오늘도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덕분에 행복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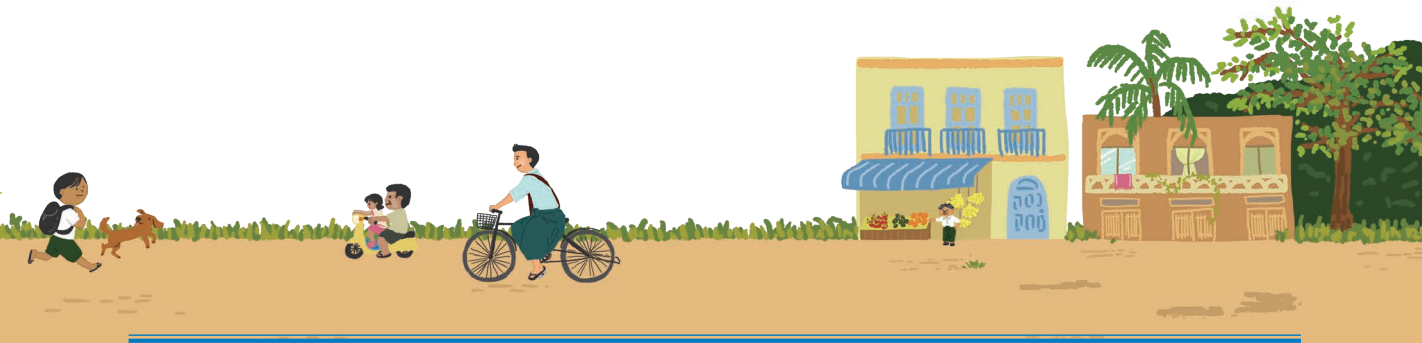
■ 들어가며

미얀마는 아직도 낯선 나라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훨씬 먼 나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 보면 미얀마는 이름이 버마였을 때부터 우리와 가까웠으며 역사가 우리와 비슷해서 놀란다. 잘 모르는 나라, 또는 가난한 나라라고 업신여길 수 없음을 이 책의 주인공 마웅저 아저씨의 편지를 읽고 느낄 수 있다. 또 마웅저 아저씨는 본인의 노력과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얀마로 돌아가 아주 큰일을 해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힘은 모여서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을 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이 따비에 도서관을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처럼 가깝게 느끼고, 도서관의 아이들을 친구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 학습 목표

마웅저 아저씨의 삶을 통해 미얀마라는 나라를 알고 그곳에서 온 난민의 처지를 이해한다.

단계	활동 내용	차시
책 읽기 전	미얀마를 아시나요? 마웅저 아저씨는 누구인가요?	1차시
책 읽기	미얀마와 우리나라 역사 비교하기	1차시
	1일 미얀마 선생님 되기	2차시
	마웅저 아저씨를 도와준 사람들	1차시
책 읽은 후	따비에 도서관 사람들	2차시



책 읽기 전

■ 미얀마를 아시나요?

아무런 정보 없이 다음 낱말을 차례대로 스케치북에 써서 보여 준다. 한 장씩 넘기면서 낱말을 읽고 어느 나라의 정보인지 물어 보자.

쉐도곤탑 / 론지 / 불교 / 띠잔 축제 / 따비에 / 밍글라바 / 친룽 / 모헝가

누구든지 맞추면 놀랍게 여기고, 모른다면 미얀마를 알려 주면서 세계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보여 준다. 이 미얀마에서 마웅저 아저씨가 편지를 보내 왔다면서 책을 꺼낸다.

■ 마웅저 아저씨는 누구인가요?

〈'미얀마, 마웅저 아저씨의 편지' 책 출판 축하 영상〉을 함께 본다. 마웅저 아저씨는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한국에서 책도 나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걸까 짐작해 본다.



책 읽기

■ 미얀마와 우리나라 역사 비교하기

마웅저 아저씨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때까지 함께 읽고 우리나라와 미얀마의 역사가 어떻게 비슷한지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도 독재를 피해 마웅저 아저씨처럼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말해 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난민'임을 알려 준다. 그리고 과거 일제 강점기, 6·25전쟁, 민주화투쟁으로 우리나라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하면서 이제 민주 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고국의 어려움으로 떠난 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 1일 미얀마 선생님 되기

책을 읽고 알게 된 미얀마에 대해 소개하자. 발표 형식은 보고서도 좋고 직접 나와서 소개해도 된다. 간단하게

는 책 읽기 전 보여 주었던 미안마와 관련한 낱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시간이 충분하면 자료를 만들어 발표해 보자.

■ 마웅저 아저씨를 도와준 사람들

마웅저 아저씨는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다. 그런데 마웅저 아저씨는 출판 축하 영상에서 보듯이 많은 분들과 친구로 지낸다. 그분들은 어떻게 마웅저 아저씨를 도와 주었을까? 짐작해 보고 역할극으로 표현하자.

책 읽은 후

■ 따비에 도서관 사람들

〈따비에 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영상을 함께 본다. 따비에 도서관 아이들이 도서관이 생기기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지 이야기하자.

따비에 도서관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안마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우리도 따비에 도서관에 도움을 줄 일이 있을지 생각을 나누어 보자.

